

제 목	국 문	최근 우리나라 뇌졸중의 역학적 양상에 관한 연구		
	영 문	A Study on the Epidemiologic Patterns of Cerebrovascular Accidents in Korea		
저 자 및 소 속	국 문	박재인, 윤태영, 최중명, 박순영, 유동준.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		
	영 문	Jae-In Park, Tai-Young Yoon, Joong-Myung Choi, Soon-Young Park, Dong-Joon Lew. <i>Dept of Preventive Med, School of Med, KyungHee Univ.</i>		
분 야	역 학		발 표 자	윤태영 (일반회원)
발표 형식	포 스 터		발표 시간	
진행 상황	연구완료 (), 연구중 () → 완료 예정 시기 :		년 월	

1. 연구 목적

우리나라에서 최근 뇌졸중의 역학적 양상을 검토, 파악코자함.

2. 연구 방법

1983년 1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만10년동안 임상소견과 뇌전산화단층촬영 등으로 뇌졸중으로 진단되어 관리된 환자들 중 설문 조사 등으로 자료 수집이 가능한 증례 493례 대상으로 역학적 양상들을 후향적으로 조사, 연구 하였음.

3. 연구결과

- 1) 전체 뇌졸중의 남녀비는 1.28:1이었는데, 병형별로는 뇌출혈에선 1:1.04, 지주막하출혈에선 1:1.08, 뇌경색에선 1.68:1, 일과성뇌허혈발작에선 1.36:1이었다.
- 2) 연령별 분포는 60대가 28.4%로 가장 많았고, 50대 27.8%, 40대 16.4%, 70대 16.1%의 순이었다.
- 3) 병형별 발생빈도는 뇌출혈 35.3%, 지주막하출혈 10.1%, 뇌경색 49.1%, 일과성허혈발작 5.5%로 뇌경색이 가장 많았다.
- 4) 병형별 연령분포는 뇌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은 50대에서, 뇌경색과 일과성허혈발작은 60대에서 가장 많았다.
- 5) 문제가 되는 선행질환은 고혈압이 69.6%로 가장 많았고, 당뇨병이 13.8%, 심장병 6.3% 등의 순이었다.
- 6) 전례에 걸쳐 평소의 습관으로 문제가 되는 2대 기호품으로서, 흡연률은 40.7%이었고, 음주율은 42.4%이었다.
- 7) 뇌졸중이 발병된 상태로는, 뇌출혈과 지주막하출혈에선 신체적 활동시에, 뇌경색과 일과성허혈발작에선 안정시에 호발하는 경향을 보였다.
- 8) 계절적 분포는, 전체적으로 겨울 29.4%, 봄 26.9%, 가을 23.0%, 그리고 20.7% 순이었다.

4. 고찰

주요 병형의 연도별 빈도의 변화추이를 보면, 이전에 훨씬 많았던 뇌출혈의 빈도가 1987년도를 교차점으로 하여 그 비율이 역전되어, 점차 뇌경색의 빈도가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로 변모하였다.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, 최근에 우리나라의 뇌졸중의 발생양상은 뇌출혈은 감소하고 뇌경색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며, 발병연령도 점차 노령화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.